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May 7, 2015 Vol. 481

## “네팔의 어린이들은 지금”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구호에 박차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네팔 속담  
네팔 대지진의 피해가 지금까지 사망자 7,250명, 부상자 14,122명(현지시각 5월 3일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101세 노인의 기적 같은 생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월드비전은 대지진이 일어난 지 11일째 되는 5월 5일(어린이날)을 맞아, 지진 피해 지역에서 조사 및 긴급구호활동 중에 만난 네팔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간절한 바램을 전해왔다. UN 발표에 따르면, 94만 명의 아동이 지진으로 인해 부모를 잃는 등 긴급구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르카에서 6시간을 차로 가야 도착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11세 칼파나는,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던 중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떨어졌고, 밖으로 나오려는 철나 집이 무너져서 다리가 잔재에 깔려 버렸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잔재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마을의 집 대부분은 무너져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고르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총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 환자가 20만여 명이나 되지만 병원에는 50개의 침상만 있을 뿐. 아이는 간신히 병원 바닥에 침상을 마련하여 회복 중에 있다.

현재까지 2백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16개의 이재민 캠프가 열린 가운데, 월드비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위한 아동쉼터(Child Friendly Space)를 운영 중이다. 카트만두 월드비전 아동쉼터에서 만난 12살 라제쉬는 땅이 흔들리던 그 때를 떠올리면 너무 무섭다고 한다. 지진의 충격으로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다.

“아주 나쁜 꿈을 꾼 것 같아요.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즐거워

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라제쉬, 12세)

월드비전은 지난 열흘간 재난지역에 시급한 방수포·담요 등 구호 물자를 전달함과 함께, 아이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치료를 위한 아동쉼터를 열었다. 카트만두를 시작으로 라릿푸르, 박타푸르 지역에 현재 총 7곳의 아동쉼터가 열렸으며, 앞으로 20곳까지 확대 개소할 예정이다.

네팔지진피해지역 현장을 다녀온 강도욱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은 “건물이 완전히 사라졌고, 길도 없어져 버렸다. 밟고 있는 잔해 밑에 수백 명이 있다는 사실에 무력함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시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쉼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이·심리 치료를 통해 속히 아이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네팔의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피해지역에서 그 동안 사회개발사업을 해 오던 굿네이버스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지진의 주요 피해 지역인 고르카와 카스키 지역에서 10년 째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다. 1 대1 결연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는 어린이도 2천여 명이며 지역개발사업의 혜택은 2만5천여 명이 누리고 있었다. 굿네이버스는 28일 오후 2시 고르카 지역의 피남에서 전체 주민 200가구에게 비상식량과 구호 키트, 방수포, 담요를 배분했다. 다행히 피남에 거주하는 굿네이버스 결연 어린이 165명은 전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굿네이버스는 정부 및 주민 관계자들과 2차 물품 배분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선 5천 개 물품을 피해 지역에 헬리콥터 등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대웅 기자



시아(9세)가 살고 있는 박타푸르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려는 기독교 구호단체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월드비전

## “가정 폭력 안 돼! 교회도 나서야”

“가정 폭력 문제를 초기에 대처하게 되는 중요한 곳이 바로 911, 가정 폭력 상담소,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가정 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5월 4일 개최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다나 에드미스톤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에드미스톤 검사는 1991년부터 검찰청에서 근무해 현재는 가정 폭력 분야 디렉터를 맡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정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자신이 만났던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고하며 목회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페널 토의에 앞서 기조강연을 맡

은 손인식 목사도 가정 폭력 해결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 목사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가해, 언어 폭력, 인격 살인을 교회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교회 안에 성경적이며 건강한 가정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정을 최우선 순위로 했을 때 손해 본 것

이 없다”며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교회에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성도를 대상으로 한 부부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부부상을 알려주고 좋은 사례들을 간증하게 해 도전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드미스톤 검사, LA 경찰청의 정 김 형사, LA법률보조재단의 조앤 리 변호사가 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한 후에는 고태형 목사, 박세현 목사, 김인철 목사, 이종태 목사 등이 목회자 패널 토의를 통해 교회와 가정 폭력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를 포함, 150여 명이 참석해 이 문제에 관한 한인교회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치유 모임, 각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213-389-6755  
김준형 기자



### 북한 위해 통곡의 기도를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북한의 구원과 영적 해방을 위한 통곡기도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는 13일 달лас 빛내리교회를 시작으로 동부를 거쳐 서부 지역까지 ‘그날까지선교연합’ 주최로 북한의 구원을 위한 기도회가 이뤄진다. 김인식, 송정명, 박희민, 손인식 목사가 이 기도회에서 관해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베티·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 단체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차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나침반교회에서 3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 찬양과 말씀, 기도로 성령 임재를 체험하라

### 3세대 함께 한 파이어 크루세이드

명불허전(名不虛傳)이었다. 하늘을 여는 찬양,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애통하는 기도가 있는 성령 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지난 25일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1년에 2차례씩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던 이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간증들이 나오면서 요즘은 한 달에 1번씩 집회가 열린다. 여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성도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오직 찬양, 말씀, 기도를 위해 모인다.

특별히 이번 나침반교회 집회는 3세대가 함께 하는 집회로 구성됐다. 그동안은 1세, 1.5세 청년들이 집회의 주를 이루고 그 청년들과 함께 부모 세대가 참여했는데 이번 집회에는 2세들도 참여한 것이다.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집회는 곧 이번 집회의 강사 김기동 목사(총만교회, OC교협회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행3:1-10)”란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당시, 현실의 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14년간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었다”면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동행하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기도회가 정기정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다. 1세, 1.5세, 2세가 하나되어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 집회 중에는 한인 외에 타민족들도 간간이 눈에 띠었다. 기도 후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인 2세 청소년 문화사역단체 갓스 이미지가 찬양 공연을 선사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 PCA 한인교회협 총회 열려

### 신임회장에 방덕수 목사

제18차 미국장로회(PCA) 한인교회협의회(CKC) 제18차 총회 및 수련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나침반교회(민경업 목사)와 뉴라이프선교교회(박영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교회여 아성을 회복하라”는 주제 아래 PCA 내 9개 한인노회 지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EM 목회자들도 약 40여 명이나 되었다.

KM과 EM이 함께 개회 예배를 드린 후, KM은 4일 동안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를 강사로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라구나비치와 게티뮤지엄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EM은 조엘 김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 민정 목사(커버넌트펠로십교회), 빌리 박 목사(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를 강사로 집회와 세미나를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민경업 목사에 이어 방덕수 목사(달라스 성산장로교회)가 회장에 뽑혔다.

김준형 기자



나성영락교회 안나장학회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사진 좌측 다섯째부터 이상명 총장, 김경진 목사, 정화순 회장.

## 나성영락 안나장학회 미주장신에 1만 달러 쾌척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나성영락교회 산하 안나장학회가 1만 달러 후원금을 23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미주장신의 이상명 총장, 나성영락의 김경진 담임목사, 안나장학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경진 목사는 “신학교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곳인데 신실한 주의 종이 참으로 필요한 때다. 미주장신이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안나장학회 정화순 회장은 “미주장신은 본 교회에서 시작된 학교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을 배출해 왔다. 이 후원금이 미력하나마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명 총장은 “ATS 정회원 인준 및 다세대 신학 교육의 비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안나장학회의 귀한 후원금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미주장신은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교로 현재 ABHE 정회원이면서 ATS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상태다. 6대 총장 이상명 박사 취임과 함께 양질의 신학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 교육,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복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 교육, 실제적 이중 언어 교육 등 5가지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날 전달식은 후원금 전달 외에도 신학자와 목회자, 평신도가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장이 됐다. 김경진 목사는 “현대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불신자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이에 대해 신학교에서 현장 목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도 방법론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상명 총장은 “현장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목사는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평신도 지도자 교육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신학교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안나장학회 임원들은 목회자 사모를 위한 상담과 훈련 등 학문적, 현실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학교가 처한 어려움에 관한 대화도 오고 갔다. 미국 주류신학교들도 입학생이 없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인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총장은 캘리포니아 지역 신학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또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미주장신은 다세대 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인 2세들이 미국 신학교로 진학하지만 그곳에서는 정작 한

인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를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해도 한인 1세 목회자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을 쉽게 겪는다. 미주장신은 1세와 1.5세, 2세를 모두 함께 교육해 이들이 신학 교육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이를 위해 집중적 언어 교육을 비롯해 각종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안나장학회는 1983년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이 뜻을 모아 시작했으며 크리스천워먼서비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등록돼 있으며 현재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린스턴신학교에 5만 달러, 여교역자 양성 기금 10만 달러, 북한선교사 양성 장학금 10만 달러, 북한 고아원에 2만 달러, 한동대학교에 9400달러, 평양과기대에 5만4천 달러 가량, 나성영락교회 장학부에 75만 달러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이 장학회는 오는 가을학기에 대학교나 신학교에 등록하게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mikkichang@sbcglobal.net으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PCA-CKC 총회가 나침반교회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방덕수 목사를 뽑았다.

한국 현대자동차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츄리 정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тен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



사이트: www.mbt.edu/ko

##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 ILP 컨퍼런스 열려

이 조나단·박종렬·정종원·최경욱 목사 등 강의



ILP의 제3회 소명 컨퍼런스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아래 27일 열렸다. 강의 중인 이 조나단 목사.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놓고 4명의 개성 있는 목회자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미주의 미자립교회, 개적교회를 섬기는 ILP(I Love Pastor)의 제3회 소명 컨퍼런스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아래 27일 또감사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이 조나단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 박종렬 목사(서울 조이어스교회),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가 각각 1시간씩 강의했다.

이 조나단 목사의 강의는 "외딴 길"이라고 요약된다. 이 목사는 17년 전 LA 한인타운에 문화 목회를 표방하며 하나크리스천센터를 열었다. 평범한 교회를 거부하는 1.5세, 2세 20대 청년들을 전도하는 것 이 목표였다. 음악,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문화 사역을 하며 청년들을 전도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교회로 보낸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직분도 없고 당연히 당회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나 직원도 없다. 교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도 없이 누구든지 오고 또 누구든지 떠날 수 있는 구조다. 그는 하나크리스천센터의 이런 스타일을 하나의 목회 모델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그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도 많았다. 일단 단순히 통계로만 보면 1년에 7명씩 부흥해 현재 100명에 이르렀다. 그는 "망하지도 않고 부흥하지도 않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자비량을 위해 투자를 뛰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일반적인 교회와의 통합 유혹 등 고

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개성 있는 목회 고집을 꺾지 않고 17년을 달려 왔다. 그러면서 "요즘은 무신론자나 동성애자들을 전도하는 교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등 소외된 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서 "여러분들도 개성 있는 목회로 개성 있는 교회를 세워 보라"고 권유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 목사의 강의 후에는 조이어스 교회 박종렬 목사가 강의했다. 그의 강의는 "기도의 부흥"이 주제였다. 한국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러브소나타 등 대형 기획들을 성공적으로 이뤄온 그가 개척한 조이어스교회는 현재 약 700여 명이 출석하는 중형교회가 됐다.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다.

박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되는 대형교회에 있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개척교회를 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빼지지 깨달았다"고 간증했다. 그는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에 익숙하지만 사실 누구도 찾지 않는 틈새가 반드시 있다. 이 조나단 목사처럼 그 틈새를 본 사람이 그 틈새를 위해 목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본 틈새는 3,40대 남성이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바쁘고 왕성하지만 미래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세대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삶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기도만이 답이었다. 박 목사는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중보기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달에 4시간이면 긴 시간이 아니기에 그들도 선뜻 참여했다. 박 목사는 "그러나 한 달에 4



박종렬 목사가 조이어스교회의 기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시간이 이들의 삶 전체를 바꿀 힘이 있었다"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영적 충돌을 경험한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성찰하며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간증했다. 그는 조이어스교회의 기도 사역을 소개하며 목회자들이 교회에 기도 사역을 정착시키길 권했다.

다음 강사 정종원 목사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강의에서 목회의 소명에 관해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최경욱 목사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리더"라는 강의를 전하며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던졌다. 그가 시무하는 또감사교회는 재정의 80-90%를 선교에 사용하며 모든 성도가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창립 계기 자체가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IMF 이후 후원이 줄어들어 사역에 위기를 맞이한 선교사들을 돋기 위해 후원 기도회를 드리다 이것이 교회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교는 옵션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면서 "교회는 자리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선교할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ILP는 13년 전 한국과 미국에서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됐다. 한국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세미나와 관광 등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사역을 해 왔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지난 2년 전부터는 미주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섬기는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한국 목회자 자녀와 사모를 각각 미주로 초청해 섬기는 사역도 이뤄진다. 김준형 기자

## "美 최고 기독교 학교 목표로"

한인이 세운 GVCS 미주 캠퍼스 개교



GVCS 미주 캠퍼스 개교를 기념해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다.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가 미주 캠퍼스를 개교하며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 까지 교육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한인 교계 지도자,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주강사는 GVCS의 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와 함께 코칭전문가 서우경 박사, 페이스 김 박사(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교수), 세계CCC 본부에서 사역 중인 김향숙 사모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미국의 현 교육 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선교사 자녀 교육, 청소년 멘토링,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대

안학교로 알려진 GVCS는 10년 전 설립됐다. 이 학교는 충청북도 음성, 경상북도 문경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정규 중고등학교로 인가받았다. 현 재학생은 약 1000명이며 최근 졸업생 다수가 미국의 드트머스대, 코넬대, UC 버클리, UCLA, 워싱턴대, 뉴욕대 등을 비롯한 해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펜실베니아 주 챔버스버그에 위치한 미주 캠퍼스는 185에이커 대지에 80여 개 건물, 2개의 실내 체육관, 수영장, 쇠신 기숙사 등 미국의 명문 기숙학교들을 모델로 삼고 있기도 하다.

문의) 717-830-9356



기감 미주연회가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통합연회를 열었다.

## 기감 미주연회, 통합연회로 극적 대화합 이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가 대화합을 이뤘다. 그동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으로 양분돼 갈등하던 미주특별연회는 지난 29일과 30일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통합연회를 열었다.

이 연회에는 전용재 감독회장이 참석해 주재했다. 전 감독회장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었던 연회가 극적으로 상생을 도모하며 통합연회를 이루었다"면서 "법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자"고 했다.

연회에서는 개회예배와 성찬식 후 회집을 시작해 양측 10인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무사히 통과시키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지방경계조정안도 큰 문제 없이 가결됐다. 연회 기간 중에는 고 흥인원 목사, 김기한 목사, 하현용 목사에 대한 추모예배에 이어 11명의 목사 안수식도 거행됐다. 또 메트로시카고교회의 전영규 목사가 은퇴하고 나성정동교회 주영호 목사, 하시엔다한인교회 이재석 목사가 성역 30주년을 맞이해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분야의 환경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장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리하우스: 170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영업일: 평일+토+일요일)

T.213.453.6624 (아이폰미팅일)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혼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초기 한국인의 기독교 수용 형태(Ⅰ)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일반적으로 세계 교회는 한국 개신교 선교를 ‘근대 선교의 기적’이라 말한다. 선교사 로즈(H. A. Rhodes)는 개신교가 “조선에서 만큼 급속도로 발전된 일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보기 드문 일이다. 조선의 40년간 신기독교[개신교]의 통계표는 다른 나라의 1백년간의 그 것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고한다”고 경탄했다.

언더우드는 선교 초기부터 낮은 계층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했다. 관리나 양반 계급은 여려가지 제약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들은 국가적 제전(祭典)에 나가 사당에 절하고 조상숭배 예식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관습상 이들은 소실이나 청을 두세 명씩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축결은 난해한 일이었다. 따라서 양반 계층 전도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가난과 고통으로 찌든 삶이어서 그들 삶에 적은 도움만 되면 새로운 신앙 접수가 용이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양반보다 비교적 전도가 쉬운 일반 서민, 농민, 노동자, 천민 등 하층민에 전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와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기관이었고, 교회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가르침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쉽게 수용한 것은 확실한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서라기보다 현실 이익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백악준 박사는 “초기 입교인들 회심 동기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이기적이었다.”고 단정했다. 즉 서양 선교사와 친해져 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직접 동기가 되어, 국난(國難)이나 역질(疫疾), 흉년 등 재난이 닥쳤을 때 교회로 몰려오는 군중이 많았다. 또한, 탐관오리의 등쌀에 못 이겨 외국인의 보호를 받으려는 동기가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선교사의 기록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탐욕스런 사람, 기회주의자, 정치적 개혁가, 모험가, 진짜 악당들이, 선교사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어드 박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알곡을 찾고 있었다. 그는 많은 실망을 했다.”

최초 조직교회로 출발한 새문안 교회 초기 역사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당시 한국에 갓 온 마펫 선교사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 교인 수는 9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는 제가 3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나서 한 번도 나타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후에도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이 허다합니다.”라고 썼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 최초로 장로로 선출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은 출교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 최초의 장로 두 사람이 모두 타락하고 말았으니, 초기 교회 교인들의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서민의 기독교 입문은 대부분 ‘이기적’이라 볼 수 있고,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 총무 브라운(Arthur Brown)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감정적’(emotional)이란 지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견해는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 분석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가 일제에 넘어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기독교 입문은 대부분 생명과 재산의 안전(安全)과 안정(安定)을 구하는 데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한 일본인 신문기자는 한국인들의 기독교 입신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20개 항을 열거했다. “만일 한국 기독교 신자에게 그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물어 본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한둘을 말 것이다. 1. 믿음을 권유한 사람 때문에 2. 설탕을 준다기에 3. 약을 준다기에 4. 돈을 준다기에 5. 벼슬하는 것보다 더 낫다기에 6. 내 부모가 믿기 때문에 7. 세도를 부리려고 8. 세무 관리의 압력 피하기 위하여 9. 지방 장관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10. 보부상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11. 사설 정보원을 피하기 위하여 12. 세금을 물지 않으려고 13.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번거롭게 하여 14. 잡혀 가지 않으려고 15. 처벌을 받지 않고 도둑질할 수 있을까 하여 16. 동학당이 되었던 과거를 벗기 위하여 17. 일 아니하고 놀 수 있을까 하여 18. 예쁜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9. 천당을 구경할 수 있나기에 20. 구름 위에 앉아 사해를 두루 구경할 기회가 생길까 하여 등”이라 규정했다.

이 분석은 물론 근거가 희박한, 다분히 다수 한국인이 교인이 되는 일을 헐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구라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에 열거한 이유로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분석은 물론 근거가 희박한, 다분히 다수 한국인이 교인이 되는 일을 헐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구라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에 열거한 이유로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며 컴패션 주일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이 예배 후 컴패션 후원 부스를 방문해 후원을 약정하고 있다.

## “1,137명 어린이 향한 놀라운 기적”

### 남가주사랑의교회 27주년 기념하며 컴패션 주일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지난 19일 교회 창립 27주년 예배를 컴패션 주일예배로 드리면서 이날 하루 만에 1천137명의 어린이와 결연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컴패션 예배는 컴패션의 국제적 구제 사역을 홍보하면서 성도들이 제3세계의 어린이들과 1대 1 결연을 맺어 후원하게 하는 행사다.

이날 남가주사랑의교회는 한어권 예배를 통해 998명, 영어권 예배

를 통해 139명이 새롭게 후원을 약정했다. 특히 한어권 예배에서는 컴

패션의 열렬한 후원자인 배우 차인표 씨가 컴패션 사역에 관한 간증을 전했다. 영어권 예배에서는 컴패션

를 통해 후원을 받았던 케냐 출신의 벤 음왕기 씨가 자신의 경험을 간증했다. 그는 컴패션 장학생이 되어 콜로라도대학으로 유학했으며 현 재 물리학 박사 과정 중이다.

이날 후원자 중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컴패션의 후원을 받고 성장했

다며 그 빛을 갚기 위해 약정한다는 사람도 있어 큰 감동을 주었다.

김준형 기자

## 남상국 목사 “낫놓고 기역자…” 저서 출판

남상국 목사(오픈바이블교회)가 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다소 복잡한 요한계시록을 그림을 이용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으로 책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및 구제봉사 단체에 기부된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 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 전도물티슈 ◆



전도물티슈 1,000set(\$380)  
고급 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 볼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 전도엽서 ◆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 가능합니다.



###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junimmedia@gmail.com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 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Call : 323.265.0244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 있는 사람

시편 1: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 1. 복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시편 1편은 총 150편의 시편의 서론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자기육체의 본능과 욕구를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해치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그 악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을 같이 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있는 사람은 사는 목적과 방법이 죄인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만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속하여서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의 소속이 오만한 자에게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복 있는 자는 결코 오만한 자의 소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나약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복 도와주십니다. 구원 얻은 사람 중에도 마귀가 차원 높은 감언이설로 유혹할 때에 동의하거나, 세상조건에 현실적인 자기 입장에 꼭 필요한 것을 미끼로 제시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하게 됩니다.

## 2. 복있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

2-3절에서는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사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영적인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 사막과 같은 형편을 오아시스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기난과 질병에서 밤낮 죽을 지경에 있다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단받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라는 목적으로 우리 삶에 질병, 환난, 기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평생이 현실적 질병과 기난과 실패로 얼룩져 있다면 이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살며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회개한 경험도 성령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시냇가로 옮겨 심기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기대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대접도 달라지십니다.

나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교역자들에게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져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 가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푸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메마른 땅이 많습니다. 그런 땅에서 시냇가는 참 귀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심기었다는 것은 나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나무는 계절을 따라 잎사귀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엄청난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유통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사업이든 장사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영호구원을 목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 땅에서 대신행하기에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3. 악인의 결국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악인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며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하면 죽정이라는 말입니다. 죽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알맹이는 빠져 나가고 껌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죽정이는 알곡에 비해 무게도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같은 가치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악인은 그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우편과 좌편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듯이 알곡과 죽정이도 섞이는 것 없이 완전히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정이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장소인 천국을 영원히 염울 수 없습니다. 이를 두려운 마음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그 기대대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섬기다가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무가치한 일들을 위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낭을 속이고 해치며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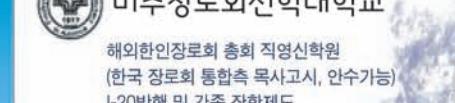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월요일 오후 5시 /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헬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7시30분
			AM16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5시 /	AM1310 허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7시30분	7시30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http://YOU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 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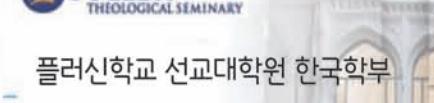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정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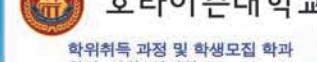
[www.ptsa.edu](http://www.ptsa.edu)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톤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mailto: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http://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및 한국에서 사업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풍호 박사, 이사장: 조종곤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i.org](http://www.aeui.org)

[aeumaster@gmail.com](mailto:aeumaster@gmail.com)

## 한국 사이버대학 정규대학 학위취득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는 한국 21개 사이버대학과 MOU 체결을 하고 빠른 기간과 저렴한 학비로 한국의 정규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선교학

단기 선교사 자격증 취득  
부설 단기 의료선교 훈련반 센터

단기 의료선교 도우미 사역, 양의사/한의사/간호사 준비  
간호보조 및 견학생 교육, 의료선교 사역을 훈련 받습니다

의료선교, 선교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  
침, 뜸, 부황, 수기치료, 지압, 추나요법을 단기간에 배워서  
의료선교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상담 및 문의

**213-381-7755  
213-381-7575**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921 Wilshire Blvd. #405-408, Los Angeles, CA 90010 (윌셔+그라마시)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피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세금 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 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쇼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http://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공포의 대지진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이곳 엘에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진대 위에서 살고 있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종종 이곳에서 여진, 강진을 경험한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덩달아 공포에 훔篪인다. 혹시 엘에이에도 벽원이 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지난 4월 25일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강도 7.8의 대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거의 초토화되어 현재까지 사망자가 5천명 이상, 부상자는 1만명 이상, 그리고 15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 발생 후 이어지는 각종 전염병의 만연은 지구 전체를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네팔 카트만두의 에베레스트 산도 흔들려서 산을 오르던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팔 지진은 지진 학자들에 의해 이미 예견되었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으로 최소 23만명이 죽었는데, 그 때 지진 학자들이 다음은 네팔에서 지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프랑스 지진 학자들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 미나를 열면서, 이곳은 지진이 발생 할 확률이 높으므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네팔 정부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일주일 후에 참사의 대지진이 네팔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그

지진은 너무 무섭다. 흔들리고 불이 쏟아지고 물이 넘치는 큰 재앙이 따른다.

네팔 카트만두 지진으로 초대형 지진이 곧 찾아 올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곳 엘에이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있다. 시애틀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강도는 히로시마 원폭 250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은 강도였다.

대지진에는 주기설이 있다는 견해도 들린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9.1 대지진에서는 22만명이 사망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 대지진에서는 7만명이 사망, 중상자 40만명 이상,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행방 불명자가 약 1만 8천명이나 된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대지진에서는 23만명 사망, 200만명 이상 이재민, 그리고 15만명 이상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9.0 강진은 1만 5천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진은 너무 무섭다. 흔들리고 불이 쏟아지고 물이 넘치는 큰 재앙이 따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네팔 정부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일주일 후에 참사의 대지진이 네팔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그

지진은 너무 무섭다. 흔들리고 불이 쏟아지고 물이 넘치는 큰 재앙이 따른다.

네팔 카트만두 지진으로 초대형 지진이 곧 찾아 올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곳 엘에이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있다. 시애틀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은 쓰나미처럼 태평양 물에 완전히 뒤덮여 버리고 만다. 대재앙이 얼마든지 뒤파를 수 있다. 네팔 지진은 그저 예고편이라는 말이 자주 마음에 걸린다.

히말리야에 주변에서 9.0의 초강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콜로라도주립대학 로저 필렌 교수가 말했다. 언제 어디에서 큰 지진이 올지 모르는 공포감과 두려움에 있지만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들은 지진으로 불안해 하며 공포감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兆가 있습니까?”(마24:3)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마13:8; 마24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이는 전도하고 멀리는 선교해야 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자.

## 불편한 예수 (V)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안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잊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해 가려 한다.

### 4. 성경의 가르침과 지침, 원리가 불편하다

청소년은 정의, 섬김, 권리포기, 정직 등 성경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긴다. 성경의 원리 원칙이 그들에겐 질식스럽고 암박스러우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 청소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불신자와 미성숙한 신앙인도 비슷하게 반응한다.

그럼 ‘성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러워짐’, 또 ‘경험이나 습관이 쌓여 익숙해 집’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정말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들은 신체적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정서(emotional), 윤리(ethics), 사고 (thought process) 등 속 사람을 구성하는 성품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

인체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고 실행하는 기능, 그리고 사고와 감정 및 인지를 통제하는 기능이 뇌의 앞 부분인 전두엽(frontal lobe)의 담당인데, 전두엽은 20대 중반,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발육이 완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발육한 전두엽을 소유한 청소년은 이기적일 수 밖에 없으며, 또 자신의 과잉행동 및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청소년은 ‘절이 없다’란 표현이 적절하다.

자,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어른스럽지 못하며,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성경의 원리나 가르침

단기 선교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존재에서 섭기고 나누고 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둘째, 세상의 그릇된 편견을 피해 치고, 또, 성경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짓말을 성경의 진리로 드러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질의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영적 축복, 신체적 축복, 관계의 축복 등 다양한 축복이 있다. 즉, 물질만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며, 말씀대로 살 때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그릇된 편견도 진실이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다. 행정은 이 진리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를 것인지이다. 경험이 부족하고 자국에 민감히 반응하는 십대, 전두엽 발육이 다 이뤄지지 않은 청소년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셋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원칙, 순종으로 인해 얻는 축복, 그리고 자족함으로 얻는 기쁨과 만족 등을 자녀에게 본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럴려면 부모가 먼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선 안되며, 물질만능주의자처럼 살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불평을 너무 많이, 자주 해서도 안된다. 남과 비교하며 살거나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도 부모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 물질과 재정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가지 가르침을 이런식으로 풀어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하면 미성숙 때문에 잠시 방황하고 반항하던 청소년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순종하리라고 믿는다.

지금 당장은 성경의 지침과 원리원칙을 백퍼센트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인내하며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면 곧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계속)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혈액 해독 / 기력회복**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 가능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 SELLA CARE®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산성	중성	셀라케어				
3.5	6.0	7.0	8.5	9.0	9.5	10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셀라케어 효능사례**

발작 · 자폐 · 무감각 증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순기력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로도 잘 인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중풍 · 마비 · 당뇨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일본 원자력 피해	선천성 뇌하수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하반신 마비, 간질, 정신병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고 말함. <b>토요다 유이토 2세(일본 짜바) 090-9934-2333</b>
자폐증	7세 남자아이가 자폐증으로 셀라케어 복용후 호전됨. <b>지민 엄마(미국) 616-822-4627</b>
혈소판	3살 반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100~400)로 돌아옴. <b>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b>
방광암 · 임파선암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을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로 한계방방적출, 1개월시한 셀라케어 1년 복용, 암세포 전현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b>나카지마상(일본 군마현 다키사카) 080-3556-1951</b>
간에 생긴 종양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바야시 어머니가 암사임. <b>고바야시(32세, 일본 요코하마)</b>
녹내장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검진됨. <b>빅토리아(59세, 일본 동경) 8180-1330-2069</b>
췌장	췌장에 물혹.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b>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b>
식도염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b>이은선(미국 MI) 616-822-4627</b>
간질	16년동안 매일 여리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함. <b>Eunice Park(미국) 213-604-1992</b>
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b>
파킨슨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좋 아져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b>John Kim(미국)</b>
심장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분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b>Mr. Yoon(58세, 미국)</b>
백혈병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검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b>Petra(미국) 708-296-2085</b>
반신불수 · 육창	10년이 넘도록 흐르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일 후부터 물라보게 좋아져 조금씩 걸음. <b>박경숙(82세, 미국)</b>
전립선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을,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b>Tomas Park(92세, 미국)</b>
심한알레르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범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b>정수자(61세, 미국) 323-774-1138</b>
비만 · 우울증 · 애뇨증	여러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b>Sam Yang(11세, 미국)</b>
자기 면역 질환	화극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증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b>Mrs. Kwak(미국)</b>
방광암 · 전립선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b>토요타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b>
약물중독 · 우울증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강아지 백혈병 · 피부병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료가 필요없게 됨. <b>김인숙 213-760-5699</b>

**건강과 성경 이야기 5/**

성경에 모세의 십계명이 있다면 뇌졸증 그러니까 중풍 예방의 십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을 하며 싱겁게 먹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라는 등의 열거지 수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웃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웃음 틀니라는 것도 있고 또한 웃음 없는 자녀에게는 웃음 없는 부모가 있다. 행복하다고 웃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웃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다. 바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라며 뇌졸증 예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졸증 스트록 중풍의 정의를 내린다면 뇨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나 뇨출혈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심각한 신경계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땍뻑해지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공급이 저지하니 줄거나 중단되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압력을 겪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이 되는 혈관 벽을 깨끗이 청소할수만 있다면 해결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잠시 성경 말씀을 보신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이 노년에 다윗의 아들들이었던 암논, 길르앗, 암살롬은 이미 죽었으므로 네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다윗 왕의 책략을 이기지 못하였습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 줌으로 해서 평생동안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척을 달라는 간교한 솔책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친의 척을 소유하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임으로 반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상 1장 2장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뇌졸증 즉 중풍 예방법을 보면 미국의 경우 뇌졸증은 사망률로서는 전체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 장애의 첫 번째 원인이며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모든 분께서 잘 아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생각하는데 일단 별病을 일으키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함으로 절대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방 방법으로 혈관을 청소하시면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혈관의 막힌것도 청소하고 혈관에 영양도 공급해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며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입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문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문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너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지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예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롱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일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베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구두변론 주요 쟁점은?

결혼 정의 자체 개정돼야 对 결혼 정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전 미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할지 여부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Oral Argument)이 4월 28일 열렸다. 이번 구두변론의 두 가지 주제는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는가”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도(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로 요약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이 수정헌법 제14조인 만큼,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과 자유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친동성애 측은 “결혼할 자유, 그 중에서도 어떤 성별을 가진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의 자유가 개인에게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고, 반동성애 측은 동일하게 “결혼할 자유는 개인에게 부여돼 있기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민이 아닌 연방법원이 판단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초에는 친동성애 측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문제를 놓고,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간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식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날 친동성애 측을 대표한 메리 보나우토 변호사는 변론 시작부터 결혼의 정의 자체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쳐갔다. 보나우토 변호사는 “동성 커플이 가족 관계를 구성할 자유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을 요구하며 “결혼할지, 또 누구와 결혼할지는 개인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근거 희박…

결혼 정의 변경은 시기상조

그러나 보수적 대법관들은 동성결혼의 역사적 근거가 희박함을 우려했다.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전통적 결혼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잘 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변론은 “동성결혼에 역사적·사회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졌다.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이 정부에 의해 제어된다고 주장하지만, 칼라하리 사람들이나 고대인들은 정부가 없었지만 결혼을 남녀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했다”며 전통적 결혼관의 역사성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이번 변론 중 그는 “동성 커플도 결혼에 대한 ‘승고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분석된다.

새뮤얼 앤리토 대법관도 “20세기 말까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나 문화권은 없었던 것으로 알

고 있다. 이 사실에서 ‘그런 국가나 문화권들이 모두 결혼을 그렇게(전통적 관점을 지칭) 정의했던,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등, 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앤리토 대법관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결혼의 개념을 이성 간에만 적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다른 사회도 2001년(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해)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 보고 결정하란 것인가”라고 물었다.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도 “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이 결혼 제도에 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 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2013년 결혼보호법 심리 당시에도 친동성애 측은 결혼의 정의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대법관들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견지했었다.

중혼과 종교 자유 침해 등 현실적 문제 우려

결혼의 정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파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앤리토 대법관은 “우리가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했을 때, 두 남성과 두 여성이 함께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보나우토 변호사의 주장처럼 누구와 결혼할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왜 한 사람과만 결혼해야 하는지 질문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나우토 변호사는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 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은 두 사람의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나는 많은 시민들이 종교적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헌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동성결혼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성직자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자 보나우토 변호사는 “오늘날까지 어떤 성직자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주례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그것은 보호된다”고 말했지만, 스칼리아 대법관의 의견은 달랐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지금까지 우리는 동성결혼에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헌법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



연방대법원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될 판결을 오는 6월 말 내리게 된다. © Roman Boed (www.flickr.com · CC)

## 종교 자유 침해, 가정 파괴 현상 등 집중 논쟁

렇게 (주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나우토 변호사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조항으로 인해 보호된다”고 주장했지만, 스칼리아 대법관은 “나중에 헌법을 위배할 사람을 (정부의 인증을 받는 성직자로) 임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정 제도에 있어서 이성결혼의 중요성 강조돼

이후 반동성애 측을 대표한 존 버시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아니라 누가 정의할 지에 대한 것”이라 말했다. 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36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지만, 오직 3개의 주만이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8개 주는 주의회에 의해 간접적으로 합법화됐지만, 나머지 25개는 전부 법원에 판결로 이뤄졌다. 워싱턴DC 도 연방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확정됐다.

변론에서 버시 변호사는 전통적 결혼을 출산(Procreation)의 관점으로 풀어갔다. 그는 전통적 결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만약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혼외자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결혼의 정의가 변경되면 이성결혼이 줄어들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진보적인 법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출산 중심의 시각을 가진 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주가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출산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

겐 결혼증명서를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건 헌법에 부합되는가”라고 물었다. 올해 82세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70세 커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동성결혼 금지법이 성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 차별성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예를 들어 수(Sue)도 톰(Tom)도 조(Joe)를 사랑하는데, 수는 조와 결혼할 수 있지만 톰은 성별로 인해 할 수 없다. 왜 이런 사실이 성적 차별에 관한 솔직한 질문이 될 수 없는가”라고 했다.

다른 주의 동성결혼 인정은 각 주의 권리로 침해하는가

두 번째는 각 주가 다른 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 이었다. 이는 연방법과 주법에 관한 논쟁으로, 현재는 결혼법이 각 주에 귀속돼 있기에,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다처·조혼·근친혼도 허용?

친동성애 측에서는 더글라스 훌워드-드리메이어 변호사, 반대 쪽에서는 조셉 웨일론 변호사가 나왔다.

훌워드-드리메이어 변호사는 “기업이 한 주의 법에 의해 설립되면, 그 기업은 다른 주에서도 존재한다. 가정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 대해 대법관들은 우려를 표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이 먼저 “해당 주에서 불법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주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

고 답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결혼한 사람의 결혼도 허락해야 하는가”라고 즉각 되물었고, 앤리토 대법관은 “만약 어떤 주에서 12세 소녀가 결혼했다면, 다른 주에서도 그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소녀 소토메르 대법관은 근친혼에 관해 물었다.

다른 주에서의 이혼은 인정되는데 결혼만 안 된다면?

다음으로 웨일론 변호사는 “수정헌법 14조는 전통적 결혼법을 가진 주가 동성결혼을 허락한 주의 결혼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각 주가 다른 주의 법을 거부할 권한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자, 긴스버그 대법관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혼은 다른 주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왜 결혼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기도 했다.

대법원장인 로버츠 대법관은 심의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문제에 관해 투표했을 때와 법원에 의해 강제되었을 때에 매우 다르게 느낀다”며 주민 투표로 인한 동성결혼 합법화와 법원에 의한 합법화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각 주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6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물론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 여부와 관계 없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굳어지게 된다.

김준형 기자

#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동족 청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있다.

## 한인교회 연합해 미국 내 동족 청년들 선교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서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동족의 자녀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동족 선교행사가 산타모니카한인교회(김경렬 목사)와 소망장로교회(성요셉 목사)에서 5월 2일 열렸다.

먼저 산타모니카한인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결단한 동족 청년들이 김우영 사모의 인도로 함께 손을 들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란 찬양을 함께 불러 큰 감동을 주었다.

예배 후에는 산타모니카 바닷가로 장소를 옮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소

망장로교회에서 식사하고 간증한 후, 장학금 수여식을 했다.

평소 청년들에게 “까마귀를 보내 달라 기도하지 말고 까마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김경렬 목사는 지난 5년간 산타모니카 지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삶으로 가르쳐 왔다. 이 교회 출신 청년들은 까마귀선교회를 조직해 각자의 십일조로 한국 내 어려운 교회 14곳을 돋고 있으며 새벽마다 산타모니카 지역 노인 아파트를 다니며 어르신들과 함께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다.

## LA기독교방송 “여보 사랑해요” 최우수상

### WCBA 방송대상 5년 연속 수상 기록

LA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이 지난달 20일 서울 허튼호텔에서 개최된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제20차 종회에서 “여보 사랑해요”란 작품으로 리디오 부문 방송대상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해외 한인 방송사로는 유일한 수상작이었다. 우수상은 극동방송의 코리아 바이블 로드가 선정됐다.

“여보 사랑해요”는 국제결혼한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자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공적 차원에서 짚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에서도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미주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슈화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세계한인기독 방송협회 방송대상은 국내외 52개 회원 방송사의 기독방송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LA미주기독교방송은 금번 제5회 방송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서 제1회 “휠체어 사랑 20년”, 제2회 “훈민정 음의 비밀”, 제3회 “LA 각설이 세 자매의 손에 손잡고”, 제4회 “인연, 만남, 그리고 가족”까지 5회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LA미주기독교방송은 지난 1998년 남철우 목사와 남태순 전도사에 의해 설립돼 상업광고와 모금 활동 없이 AM과 FM 2개의 라디오 채널을 통해 지난 17년간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24시간 종일 방송하고 있다.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가 데뷔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영아티스트 데뷔, 콘서트 수익금은 시리아 난민 선교

지난 4월 23일 토랜스 시빅센터 제임스 앤스트롱극장에서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의 데뷔 콘서트가 열렸다. 이 오케스트라는 주님세운교회가 지역 사회를 음악으로 섬기기 위해 전적으로 후원해 탄생했다. 이날 콘서트에도 타민족과 비기독교인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연의 수익금은 이슬람국가 IS로 인해 발생된 시리아 난민들을 선교하는 데에 사용된다.

지휘는 다니엘 석 집사가 맡았으며 퓨

젯사운드대학교의 박주은 객원교수가 쇼팽의 Ballade No. 4를 독주하고 모짜르트의 Concerto No. 23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소프라노 골다 베크만도 찬조 출연해 ‘Quando men vo’를 독창했다.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는 약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오보에, 콘트라 베이스, 바순, 호른, 트럼본, 피아노, 드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 OC교협-CTS, 박공서 목사 초청 요한계시록 세미나

오렌지카운티기독교회협의회(김기동 회장)와 CTS America(대표 김종철)가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새부천장로교회(예장 대신) 박공서 목사를 초청해 5월 12일, 13일 각각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미주비전교회에서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 세미나에 관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짚어줌으로써 평범한 일상 속의 영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성



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설명했다. 세미나 참가비는 없으며 목회자, 신학생 및 평신도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공서 목사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다수의 영성 세미나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인도한 바 있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특별한 기적을 만든다>, <소설 <사농말>, <시집<님>>, <생활 영성 메뉴얼>, <힐링 큐티>, <이야기 요한계시록> 등을 저술했다.

참가 문의) 562-565-2234 장소)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 교회 밀션 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예배 오전 6: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침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창당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시

##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church.com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예배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김광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화)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화)

##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5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

이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714) 319-2234

김경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9: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후 9:00

## 나성동산교회

온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 한우리장로교회

밀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목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 요한 선교회

gkak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389-0691 / F.(213) 389-069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후 10:00  
2부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310) 645-3698 / F.(310) 645-3060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 오후 1:00

##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 939-7323 / www.lakwpc.org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 교부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

##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회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종교동부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06:00  
고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예배(토) 오전 06:00  
문화교(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회(주)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최승목 담임목사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 sunhanchurch.com

##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6: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 인랜드교회

예수의 윤전한 제자들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  
171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 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여름부 예배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EM) 1:15  
3부예배 오전 11:45 종교동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봉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종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이/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친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츄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우부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호년 담임목사

EM 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한국어 예배 오전 10:00 월급 6:00(토)

한국어 예배 오전 10:



나눔과 후원에 참여한 명성어린이집 어린이들 ⓒ밀알복지재단

## “어린이날 맞이 아동결연 후원 캠페인”

### 명성어린이집 280명의 어린이들 아동결연 신청해

명성어린이집이 어린이날을 맞아 한 학급 당 한 명의 아동을 결연하여 후원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명성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280명의 어린이들은 한 학급 당 한 명의 아동을 지정하여 결연후원을 해 총 13명의 해외 아동과 1명의 국내아동을 돋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온라인나눔팀 박송희 주임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춤을 할 때까지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나눔을 이어받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명성어린이집 이미혜 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아이들이 직접 후원에 동참하면서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명성어린이집은 아동 결연 외에도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울림

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펼치기도 했으며, 매월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은 특별한 저금통을 선물 받아 용돈을 절약해서 어려운 친구들을 돋는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나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한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후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눔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용돈을 조금만 아끼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우린 모두 친구이니 함께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돋는 일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해외아동결연후원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홈페이지([www.miral.org](http://www.miral.org))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각 나라별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다문화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

### 한교연 등 교계 도움으로 한국서 부모 초청 행사 진행

한국교회가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마련했던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 몽골·필리핀·베트남·태국·중국 5개국 85명의 다문화 가족 부모들은 지난달 21일 입국해 8박 9일간 훈훈한 시간을 보낸 뒤, 29일 오후 ‘환송예배 및 환송식’에서 성원을 보내준 한국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각각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예장 통합·백석·합동 개혁 등 주요 교단과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이윤재 목사), 성산효나눔재단(이사장 최성규 목사) 등이 주관했다.

29일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진행된 환송식에서 설교를 전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은혜와 복이 범사에 넘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과 부모 300여 명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환영식 후 대관령 양떼목장을 거쳐 숙소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여장을 풀었고, 개회예배 겸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지난달 22~23일은 조식 후 숙소를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 속초 액스포타워, 아바이마을, 강릉 오죽헌, 경포대 등을 관광하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 도착한 뒤 각 가정별로 6일 간 정을 나눴다.

환송사를 전한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다시 기쁜 만남이 있을 것이다.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비록 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며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의

사랑을 꼭 기억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김요셉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은 기난과 설움이 많은 나라였으나 선교사들이 와서 복된 나라가 되게 했듯, 여러분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길 바란다”고, 준비위원장인 정서영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거 여러 나라들에게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 성장했으니 이제 그 사랑을 나눠드려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다문화 가족 부모들도 감사 인사로 환답했다. 몽골에서 온 어던토야 씨는 “한국과 몽골은 외모도 손님 대접하는 문화도 비슷한 것 같다”며 “좋은 계절에 한국에 와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문화 가족 부모들은 온 풍 반루움 씨는 “딸은 한국으로 보낸 뒤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사는 모습을 보니 기뻤고 걱정이 사라졌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과 부모 300여 명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환영식 후 대관령 양떼목장을 거쳐 숙소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여장을 풀었고, 개회예배 겸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지난달 22~23일은 조식 후 숙소를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 속초 액스포타워, 아바이마을, 강릉 오죽헌, 경포대 등을 관광하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 도착한 뒤 각 가정별로 6일 간 정을 나눴다.

류재광 기자

## O.C./일반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대학생연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1200 W Lambert Rd, Breca CA 92821(Lambert&Puent)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후 6:00

**로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D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밤예배 오후 2:30 금요공연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밤예배 오후 2:30 금요공연 저녁 8:00 본당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김한효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7:15 4부 창년예배 오후 1:30  
2부 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화~금)  
3부 예배 오전 11:00 토 새벽 협사기회 새벽 예배 6:00

**놀워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慰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 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김용철 담임목사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1부 예배 오전 12:30  
교육부예배 오후 12:30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벽기도회 오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세벽 예배 새벽 5:30 (월~금)

**얼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kim@yahoo.com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후 12:30  
교육부예배 오후 12:30

**권혁빈 담임목사**  
1821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화~금)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연부 오후 2:30

**예 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생연부 오후 2:00

**알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화~금)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6:30 AM (화~금)  
금요모임 7:20 PM (상경 66권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6:30 AM (화~금)  
금요모임 7:20 PM (상경 66권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새로운 교회**

이세우를 선보이기 위해 미션을 펼쳐온 새벽예배 기독교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석해라(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9:00pm  
주일 국어 예배 오후 9:00am 새벽기도회 9:30pm  
주일 아미 예배 오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후 11:00am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후 11:30  
도요 예배 오후 7:30  
초등부 모요예배 오후 7: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45  
주일5부예배 오후 10:30  
영어주일예배 오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5:30  
토,주일 오후 6:0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본당) 새벽기도회 (화



## “북한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 나서야”

북한자유주간 중 유엔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등 국제사회가 함께하다



4월 30일 뉴욕 유엔 본부 제3회의실에서 유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목소리: 북한인권에 대한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유엔 본부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 탈북자 3인-- 북한인권 참상 생생하게 증언해

유엔 미국대표부(대사 사만다 파워)가 30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유엔 본부 제3회의실에 '피해자들의 목소리: 북한인권에 대한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유엔의 토론회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가 북한 인권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는 최종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3번째 열리는 것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각국 유엔대표와 탈북자 30여 명, 한미 인권단체 관계자들, 국제 언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자 김조셉 씨, 조진혜 씨, 김혜숙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김조셉 씨는 13살에 이유도 모른 채 수용소로 끌려가 하루에 16시간의 중노동 끝에 28년 만에 나온 경험을 밝혔다. 김혜숙 씨가 수용소에

서 나오게 됐을 때 알게 된 자신의 수감 이유는 할아버지가 월남을 했다는 것이었고 김혜숙 씨는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10대와 청년의 모든 시기를 아사 직전의 위기를 넘겨가며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생생하게 전했다.

김조셉 씨는 북한 내에 먹을 식량이 부족해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가 중국으로 떠나고 꽃재비가 되어 길에서 노숙하며 지냈던 시절에 대해 증언했다. 김조셉 씨는 "북한은 외부와 대화가 단절된 고립되고 매장된 나라이지만 혼자는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인 북한에 빛을 비출 수 있다"면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 이 기근 때문에 죽었다. 북한 사람들에게 밭얻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그들의 고통을 말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진혜 씨는 가난과 식량 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삶에 대해서 증언 했다. 조진혜 씨는 "할머니가 죽기 전 했던 말이 '찐감자 한 개만 먹어 봤으면'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증언 했다.

탈북자들의 증언 이후에는 유엔 각국 대표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압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응답을 나눴다. 또 이날 탈북자들의 증언 중간에는 유엔 북한 대표부 3명이 발언권 없이 이번 토론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려 회의장에 참석한 이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사만다 파워 유엔미국대 표부 대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원 기자

### 제12회 북한자유주간 '워싱턴 선언' 남겨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린 제12회 북한자유주간이 예배와 기도회, 탈북자 기자회견 및 북한 인권개선 토론회 등에 이어 '북한 해방,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북한자유주간에 참여한 미국, 한국, 일본,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협의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이제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단순

히 알릴 때가 아니라,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며 3대에 걸쳐 북한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워싱턴 선언은 "오늘날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노동착취 등의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성과 관계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타도와 자유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해결의 최우선과제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 조국 통일 위한 통곡기도회

UTD-KCC 주관 美 전역 7개 도시 순회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주관 2015 통곡기도회 기도행진 개최를 알리는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단체의 국제대표인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전 담임), 공동대표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전 담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 총장),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등이 함께 하며 기도회의 목적과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통곡기도회는 오는 13일 텍사스주 달라스의 빛내리교회에서 시작하여 7월에는 미 동부지역을 거쳐 9월 말 이곳 엘에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의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손인식 목사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도 70년 만이고, 동구 소련 공산 정권이 무너진 것도 70년 만이고,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올해로 70년째이다"며 올해를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기대했다.

또 "조국의 통일은 독일처럼 반드시 기도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도 운동은 필수이다. 그 외에도 탈북자들을 돋는 '빼내오기', 북한을 지원하는 '퍼주기',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흔들기' 등의 사역을 병행해야 한다. 삼일독립 운동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지대했듯이 우리 교계가 연합하여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고 했다.

송정명 목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독일 통일도 라이프치히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

은 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며 하늘보좌에 상달될 통곡기도회에 교계가 연합하여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민 목사는 "오늘날 민족의 모든 고난은 분단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된다. 통일 문제는 이 시대의 과제다"며 "독일 통일도 미래 학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통일 문제를 위해 서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김인식 목사는 "지난 2004년 목회자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통곡기도회가 이제는 교계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이슈로 부상됐다"며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랐다.

통곡기도회는 5월 13일(달라스, 빛내리교회)/5월 20일(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5월 29일(애틀랜타, 베다니장로교회)/7월 15일(워싱턴, 워싱턴중앙장로교회)/7월 19일(덴버, 덴버장로교회)/9월 16일(뉴욕, 프라미스교회)/9월 29일(로스엔젤레스, 주님의영광교회) 열린다.

한편, UTD-KCC는 지난 2004년 통곡기도회를 시작한 KCC가 확대된 국제적인 북한선교 전문 단체로,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감리교회)와 임창호 목사(고신대학교 교수), 이원상 목사(와신토중앙장로교회 원로)가 각각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문의는 선교 본부 사무실 문성범 행정실장(949-297-3788), 또는 이메일(utdusa21@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북한자유주간' 중 로버트 캐네디 인권센터에서 북한자유 캠페인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전화 1-877-580-2424 샌마이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최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회률 전문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회률 전문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Duplex	Dual Scan ADF Simplex
*1					*2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 수잔 솔티 대표 “고통스러운 북한 자유의 길, 하나님만 의지할 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매일 한계를 느낄 정도로 힘들다고 답했다. 아무도 와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았던 북한 인권을 와치며 미국과 국제 사회의 관심을 지금의 수준으로 이끌어낸 수잔 솔티 대표의 끽끗한 지난 행적을 볼 때 매우 의외의 대답이다. 수잔 솔티 대표는 수시로 다가오는 한계 상황에서도 맨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고 말했다.

일반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수잔 솔티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적으로 올인하게 된 계기 또한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해 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온 것이 처참한 인권유린 상황 가운데 처해진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눈물이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에 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대거 초청됐고, 이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증언과 북한 자유를 위한 주장을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 다음은 수잔 솔티 대표와의 인터뷰이다.

▶ 올해 북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수잔 솔티 대표는 어떠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가?

▶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지고 문이 열릴 것인지 물어본다. 하지만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바로 내일이라도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이 사실이다. 핵심은 정보의 유출 및 정보의 유입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하지만 이제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다양한 사정들을 실시간으로 듣게 됐다. 또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돈도 전달됐고 이것이 북한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점차 자신들의 힘든 삶의 원인이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기자회견 중에 북한에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의 북한 체제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

▶ 현재 위성사진으로 분석했을 때 북한에 시장으로 파악된 곳만 200곳에 이른다. 위성사진으로 분석되지 않는 내부 장마당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시장이 형성돼 있다. 벌써

북한 내

부의 많

은 사람

들이 자

본주의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는 의미다. 북한 당국이 시장 경제 현상을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펼쳤다. 그 일환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시장경제 참여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다. 북한 정권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북한 당국이 깎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00년 후반기 이후에는 왜 북한에서 더 이상의

기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200만~300만 명이 아사했을 당시에는 장마당이 없었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앉은 자리에

서 굶어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린

데 이제는 스스로 죽지 않기로 결

심하고 나와서 장사를 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

다. 이런 결심과 결단력이 자신들을 살리고 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살

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이 통

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를 ‘탈북자들의 행동’으로 정했다.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정보의 꾸준한 유입과 소통이야말로 현재로써 북한 자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인가.

▶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탈북자만

큼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자산은 없다. 탈북자들만큼 북한과 북한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또 어

떻게 하면 난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것도 탈북자들이

다. 탈북자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할 것이다. 이들의 활동 또한 적

은 비용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북한

의 변화를 가져온다. 안타까운 것은

탈북자들이 딱 하나 안 가진 것이

바로 재정 지원이다. 정말 북한 인

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북한을 변

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런 탈북자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 그들은 우리들이 하고

자 하는 일을 대신 해 줄 것이다.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국방을 위해 도입하는 전투기 한 대

가격이면 북한 주민을 더욱 효과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수잔

솔티 대표의 의견은?

▶ 북한인권 운동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한국사회 자체

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다. 미

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일본에서 조차도 북한인권법이 통

과됐지만 한국에서만은 아직 통과

되지 않았다. 한국 정치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

회가 공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북한자유연

합은 항상 북한 자유를 위해 일한다

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일한

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인간

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면 북한의 자유를 말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탈북자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샛째, 북한 인권 문제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 이는 정치적 이슈이며 교회들이 무관심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 사실,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올해에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 취소하려고까지 생각했을 정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한다. 항상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후원이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는 예전에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사진 전시를 기획했는데 너무나 많은 미국 내 한인교회들이 참가하지 않겠다며 외면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영적 싸움으로 교회들이 북한 인권 문제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려는 마귀의 사악한 수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권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 북한 인권을 위한 수잔 솔티 대표의 활동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

가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이슈라고 생각한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을 좀 더 불러 일으키려면 탈북자들에게 발언 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그들이 활동하며 본인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국제적인 여론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인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미국인이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한 신앙적인 계기가 있는가?

▶ ‘스크립춰 유니온’이라는 큐티를 1992년도에 시작했다. 그리고 94년도 혹은 95년도에 기도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달라”는 기도문이었다. 그 기도문이 마음에 박혔다. 그리고 2년 후 북한 문제를 품게 되면서 이것이 기도응답이 됐다. 처음 기도할 때는 몰랐지만, 북한 상황을 듣자마자 곧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북한의 자유를 위한 활동이 쉽지 않은 길인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하나님과 도우심을 느낀 순간들이 있는가?

▶ 사실,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올해에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 취소하려고까지 생각했을 정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한다. 항상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후원이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사에서 탈북자들이 했던 말은 너무도 심각한 이야기들뿐이었고, 이것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어디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껏 살아왔는데 너무 힘든 것만 생각했다는 것을 회개했다.

탈북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과 북한에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

▶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제재법이 통과되면 북한 인권 개선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가?

▶ 현재 북한 제재를 위한 법이 하원에서는 통과됐다. 상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북한 내부에 들어가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리아 등 다른 인권 문제들도 너무 많아서 북한제재 문제를 가장 중요 쟁점으로 놓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이 움직일 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여론을 모아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 북한 인권에 관한 교회들의 참여를 높리기 위한 수잔 솔티 대표의 의견은 어떠한가?

▶ 북한 문제를 너무 북핵에만 집중해온 것이 한국과 미국의 실수였다

고 생각한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를 비껴갔는데, 그 결과는 북핵도 해결되지 않고 인권도 해결되지 않았다. 인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대원 기자

## .... 판 결 문 ....

건강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이 중 열	이 영 속	최 정 래	최 화 열	장 경 무	장 수 자
판결 결과 시무장로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시무권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시무권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안수집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명예장로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장로직 면직 및 출교
판결 날짜 2015년 2월 25일	판결 날짜 2015년 3월 6일	판결 날짜 2015년 3월 6일			

건강한 교회 재판국

#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가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솔모기박사는 이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청정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길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체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 임상 2상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진

Marquis Who's Who 등재

FDA 인증

Special Price

1병 \$89 3병 \$249 6병 \$474

+ tax + tax + tax

+ tax + tax + tax

[www.chdaily.com](http://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amp; PARALEGAL #227 / BOND 578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한국 배너 스텐트포함 \$655 (문의주시면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원은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선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용,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업(설비내외, 차량) 제작, 한글문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제작과제 및 제작 대상, 선교단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세기종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일

◆ 전도용디자인 ◆

◆ 불펜 ◆

◆ 전도엽서 ◆

◆ 전도엽서 ◆

◆ 전도용품 세일 ◆

#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바울이 머물다 간 지중해 섬들

조광호 | 대한기독교서회 | 3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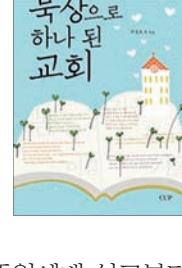
바울은 2천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중해 지역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저자는 <바울과 함께 걷는 지중해 성지순례>의 후속편으로, 키프로스와 사모트라카, 레스보스, 히오스, 사모스, 코스, 로도스 등 레반트 지역 섬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문·역사·지리적 관점으로 섬들을 설명하고, 지중해라는 큰 틀에서 이 섬들의 위상과 특징을 탐구하고 종합적 이해를 추구한다.



### 묵상으로 하나된 교회

주정오 외 | CUP | 192쪽

10년 이상 전 교인이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 열린문교회 이야기를 담았다. 이 교회는 말씀과 묵상, 기도의 '삼각편대'라는 목회철학에 따라 주일예배 설교부터 교회학교와 새벽기도회, 심방 설교에서 가정예배까지 모든 본문을 하나의 본문으로 삼고 있다.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편지 형식으로 성도들 집집마다 배달했던 묵상편지를 담은 형식이다.



### 죽을만큼 거룩하라

찰스 피니 | 브니엘 |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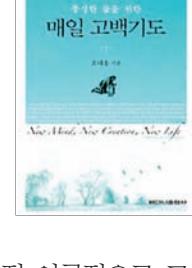
19세기의 유명 부흥사였던 저자는 당시 부흥사역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거룩을 무시하는 모습을 거듭 목격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부흥하면, 오히려 성화에 관한 가르침은 더욱 소홀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먼저 성화의 교리에 대해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



### 풍성한 삶을 위한 매일 고백기도

오태용 | 베다니출판사 | 200쪽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과 고백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삶을 살게 돋고자 하는 책이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고백'이 왜 필요한지 성경적·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고백과 선포에 대한 영적 원리를 쉽게 설명한다. 바울의 최고 계시인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역설한다.



## REVIEW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스가랴서 설교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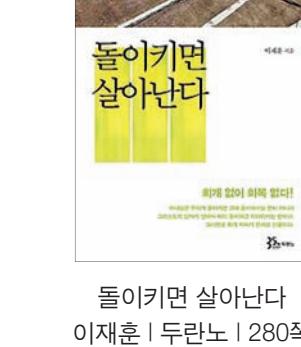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은혜’의 동의어는 ‘다시’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구약 소선지서 중 하나이자 환상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 난해해 보이는 스가랴서를 <돌이김>과 <세우심>, <보내심> 등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설교한 <돌이키면 살아난다>를펴냈다.

이 목사는 “무슨 일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일이 구약에서 일어났다. 이스라

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부터 짓고자 했지만, 장벽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우선 순위를 바꿨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후,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다.

이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이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팀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은 가슴을 뜨겁게 살아나게 하셨다. 학개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이고 직접적인 책망과 훈계로, 스가랴 선지자는 아름다운 환상과 회복에 대한 격려로, 그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이재훈 | 두란노 | 280쪽

이 목사는 스가랴서의 감동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주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나, ‘회개하라’는 명령과 훈계뿐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받아 주신다는 회복의 역사를 아름다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회개는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심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돌이켰을 때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회개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도적인 은총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사단은 ‘내가 돌이킨들 회복이 이루어질까’ 하는 불신을 심어, 회개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 “회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진 우리를 양팔

을 훌쩍 벌려 안으실 준비가 돼 있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이는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달려가 입을 맞추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모습과 같다.

이재훈 목사는 이 시대 한국교회에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에서, 회개가 시작되며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대웅 기자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쇠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입자마자 혈액 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빨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PCA-CKC Holds Fourth Annual Leadership Forum for English-Speaking Pastors

BY RACHAEL LEE

Some 40 English-speaking (EM) pastors of the Coalition of Korean Churches—a coalition of Korean churches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also known as PCA-CKC)—gathered for the PCA-CKC's fourth annual leadership forum for EM pastors, which took place in Orange County, CA. Pastors from various regions throughout the country, including Souther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and Georgia, were in attendance. Simultaneously, some 150 Korean-speaking (KM) pastors also gathered for the PCA-CKC KM's 18th annual meeting at the same location.

"We organized these annual gatherings to create a space where EM pastors could gather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really create this network within the presbytery," said Reverend Billy Park, the founder and senior pastor of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in Suwanee, GA.

Reverend Joel Kim from New Life Mission Church spoke on the first night on Acts, and particularly referred to the example of the Apostle Paul and his companions as an example of the need for co-laborers to effectively do the gospel work.

Reverend Min Chung, the senior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CFC) in Champaign, IL, spoke on the story of Samson during the second night, and he cautioned pastors that there are consequences to sin. He also reminded pastors of the mercy and grace that follows, and encouraged pastors that even after mistakes and failure, God can and will still use them for His kingdom.

Reverend Billy Park, the final speaker, spoke on 'Reformed Ecclesiology,' and said that when he was once asked, "What's the most

pressing issue in the church?" he answered, "The lack of ecclesiology," a term that refers to the study of the church. Specifically, Park focused on the structure of the church, and explained the reasoning behind the plurality of elders in the Presbyterian church.

"Jesu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not any teacher or pastor," Park said. "The Word is the apostolic witness of God, and the church and elders are here to guard us from thinking that we are the head."

Pastors also had opportunities to share concerns and questions during Q&A sessions which took place after each main session, during which younger pastors were able to receive advice from the older pastors in the forum. One pastor expressed that he felt out of place in both the Korean and Anglo presbytery, and asked what kind of a future Korean American pastors in the PCA should be looking forward to.

"Many of the PCA leaders are looking for young pastors to take on leadership roles," said Park, who works in the PCA as the Korean Relations Representative for the PCA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many of those young pastors are Asian Americans. We're the largest minority group in the PCA. So if we start becoming more informed, start getting familiar with the ways of the denomination, I know that there will be a lot of opportunities in the future."

To note, KM pastors sponsored the EM pastors' registration and hotel fees, and up to half of the flight costs for the pastors who came from out-of-state. Some pastors, however, expressed that they would have appreciated more time to spend with the KM pastors during the conference for more interaction and building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KM and EM leaders.



A panel of North Korean defectors shared testimonies at the United Nations on April 30 regarding human rights in the DPRK.

## North Korea: The Regim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Need for Continued International Pressure

Young-Hwan Hahn, Hyung-Jin Im, Anderson Kim, and Daewon Kim contributed to this report.

As one of the most secluded and isolated regimes in the world, and as one of the nations with the most severe religious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North Korea is the subject of attention for many organizations, events, and movements all over the world.

Of those, one of the most grand-scale events centered on the issues involving North Korea is the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NKFW), hosted by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The event features North Korean defector delegates, Congressional hearings, reports, panels, protests, and other events that shar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condition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live in.

This year's NKFW, which took place from April 26 to May 2, focused on the changes and improvements that have been progressing within the country recently, and the actions that are still need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rther the progress toward free-

dom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unification of Korea.

One of the major points of progress was information flow, according to Suzanne Scholte, the chairwo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hard to censor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country, but these days, there are so many refugees, and through them, people within North Korea are able to obtain so much information," Scholte said. "The North Korean people are slowly starting to understand that the difficulties they face in their daily lives are due to the regime of Kim Jong-Eun, and I would say that's a huge change."

Additionally, the increase in defectors also help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come more informed of the actual conditions inside the country, and the impoverished state that the people live in.

Many of the defectors who were part of the NKFW were given multiple opportunities during the week to share testimonies from their experiences—stories of starvation, homelessness, and unreasonable arrest and detainment in con-

centration camps.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ays to alleviat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nation, according to leaders of multiple organizations.

One of the ways to place increased pressure to re-list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ccording to Joshua Stanton from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Doing so would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the regime and pressu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stop its illegal activ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eyond international political efforts to alleviate the condition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defectors asked for prayers from the international church community.

"The fact that I am here is a result of the sincere prayers of all of the members of the church on behalf of North Korea," said Young-Hee Kim, who shared her testimony at a church service that started the NKFW on Sunday. Kim said her hope is that the gospel that sets prisoners free would penetrate North Korea, "just as it proclaims in Isaiah 61:1-3."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IV: "We Would Go to Any Length..." A House Church's Heart for the Lost



Pastor Keesong Lee is the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at LA Seoul Grace Church.

BY RACHAEL LEE

we would try to bring that every Friday. But one time, the market didn't have any Homerun Balls left, so we just bought something else. But the VIP member said, 'Where's my Homerun Balls? You said you'd bring Homerun Balls.' In a worldly perspective, someone might think, 'Why go through that humiliation and receive that kind of treatment?' But those complaints don't stop us. We would do anything we can to bring more nonbelievers to our meetings in hopes that they would know Jesus."

Every Friday, in order to make sure that everyone could make it to the flock group meeting, Lee would start out at his home in Monterey Park; then to Pasadena; then to Glendale; and finally to the flock group meeting location in La Crescenta. After the meeting is over, Lee would go back the same route—but after he drops off his family at Monterey Park, he makes one more stop to Long Beach to take a flock group member home, and then heads back home himself. By the time he arrives home, it would be 1 AM.

"Giving rides is just the start," Lee explained. "We cook food for them and bring the snacks that they like. One particular member really likes Homerun Balls [a Korean chocolate filled snack], so

leader who cries every Sunday at worship, praying for the nonbelievers in her family and friends and sowing in tears. It's because of a heart like this, a heart of hunger and desperation for the lost, that even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this house church has lasted for over 7 years now. They won't give up because they won't give up on these souls, Lee said.

"What about the EM?" I asked. It seemed like Lee was describing mostly the KM members. Out of 50 young adult and college members, only 8 of those are regular members of the EM. Lee shared honestly that that heart of desperation is not so apparent in the EM.

"There are a lot of reasons why though, and I can't blame them for it. For one thing, our facilities aren't that great right now; for example, we don't have a basketball court, and the kids just hang out in the parking lot. So a lot of our EM members are hesitant to invite their friends to our church because they feel that there wouldn't be much to do," he explained.

"But on the other hand, I also think that perhaps some of our EM and 2nd generation members are 'spoiled'. They've grown up in so much abundance. Abundance of spiritual investment and prayer. Abundance in material wealth and comfort. And because of it, no one can blame them when they are not hungry for the Lord or hungry for the lost."

He went on. "Isn't that the heart of a Christian? The heart of the Church? To hunger for the Lord. To bring one more lost soul back to Him. It's when we realize this, when we're poor in spirit and we cry out for His people that revival will com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 Nepal's 'Red Tape' Slows Relief Efforts in Rural Areas Affected by the Earthquake

BY PATRICK LEE

The Nepal earthquake that occurred on April 25 still has the country in need of emergency relief. Some rural areas have yet to receive aid as relief efforts are unable to reach victims because of bureaucratic red tape.

Currently, relief suppli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are held up at airports and warehouses because of inspections required by Nepalese customs authorities. Aid organizations have shared their frustration with the slow process, urging Nepal to lift these procedure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The bottleneck was the fact that the bureaucratic procedures were just so heavy ... So many layers of government and so many departments involved, so many different line ministries involved ... We need [these supplies] up in the affected areas," Jamie McGoldrick of the United Nations told the New York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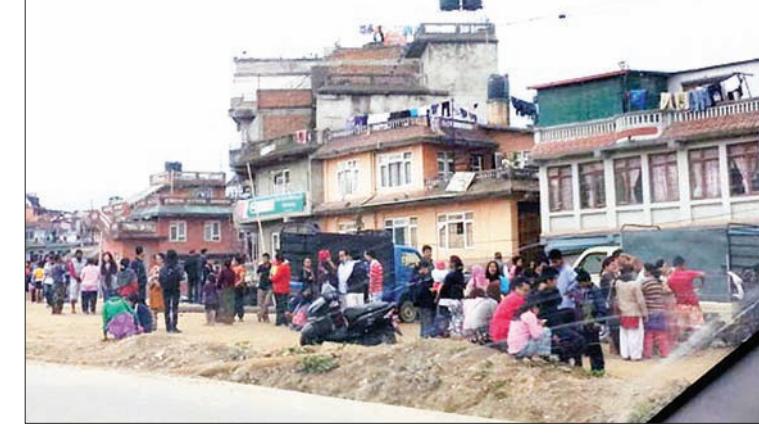
The 7.8-magnitude earthquake killed more than 7,000 people. With structures leveled and power lines destroyed, the Nepalese government was unresponsive. The first two days were filled with panic as the government struggled

to assess the situation.

In order to create an effective response, government officials said that the Nepalese government needed to enforce strict rules in every aspect of government, including incoming supplies from relief efforts. Some believe that the bureaucracy's procedures for the incoming supplies is thorough in order to prevent any future accusation of hoarding relief materials.

The nation's capital of Kathmandu has received aid and volunteers from around the globe. Minendra Rijal, the Information Minister of Nepal, said that most of the major rescue work has been accomplished in the capital and nearby areas. The rest of the work in those areas could be handled by local efforts.

Rijal instead suggested that the relief workers help out other more rural areas in Nepal, where some communities are still unreached. Some 4,000 aid workers worldwide have gone to Nepal to assist in relief efforts. Given its location and high altitude, Nepal is a difficult country for relief efforts to reach. Experts state that the beginning stages of relief, however, are crucial to the recovery of the nation.



More than 7,000 people were killed and tens of thousands more were injured in Nepal due to the 7.8-magnitude earthquake. (Photo courtesy of Hee-Chul Choi)

## Decision Regarding Same-Sex Marriages to Be Made by End of June

# Supreme Court Justices Consider Oral Arguments on Same-Sex Marriages

BY RACHAEL LEE

Since 2013, when the United States vs. Windsor case was heard and the third section of 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was struck down as a result, the nation has rapidly moved toward greater acceptance of same-sex marriages. In less than two years, the number of states that issue marriage licenses to same-sex couples increased from 17 states to 36 states and Washington, D.C., and only 14 states do not accept same-sex marriage today.

Mos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ard oral arguments on April 28 regarding cases involved with same-sex marriages in four states—Ohio, Kentucky, Tennessee, and Michigan. The decision of the nine Supreme Court Justices that results from this hearing—which most project will be made by the end of June—will make a historic statement on the status of marriage in the country.

**The two main questions:**  
Who gets to choose what?  
Do the states have to  
recognize out-of-state  
marriage licenses?

The oral arguments were centered on two main questions:

1) Does the Fourteenth Amendment require a State to license a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which will hereon be referred to as Question 1)

Marriage is currently an institution that is determined at the state level, and until recently when state's amendments and propositions were struck down by federal courts, any given state's definition of marriage was determined through a bill or through a voter-approved proposition.

Hence, Question 1 could be seen as the essential issue at stake in this case, as it determines whether same-sex couples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be granted marriage licenses. Who gets to decide who I want to marry? And who gets to decide the definition of marriage for me? In other words, what is at stake in this case is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be able to choose his or her spouse, and the right of a state to decide what an institution like marriage means in that state.

2) Does the Fourteenth Amendment require a State to recognize a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when their marriage was lawfully licensed and performed out-of-state? (which will hereon be referred to as Question 2)

If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the answer to Question 1 is a yes, then this second question doesn't need to be answered, since same-sex marriage will be accepted on a national level in that case. Bu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answer to Question 1 is a no, then the Justices' decision regarding Question 2 will determine whether same-sex couples married in certain states will still be recognized as married in states where marriage licenses are not issued to same-sex couple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concerns that the judges voiced during the oral arguments.

*Do judges have the right to change a long-standing definition of marriage?*

Justices brought up concerns involving the fact that the definition of marriage as between a man and a woman has exist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in almost all societies and cultures.

"How do you account for the fact that, as far as I'm aware,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re never was a nation or a culture that recognized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posed Justice Samuel Anthony Alito, Jr.

"Now, can we infer from that that those nations and those cultures all thought that there was some rational, practical purpose for defining marriage in that way, or is it your argument that they were all operating independently based solely on irrational stereotypes and prejudice?" Justice Alito asked Attorney Mary Bonauto, who took the position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right for same-sex couples to be granted marriage licenses.

Justice Stephen G. Breyer said the view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has been the law everywhere for thousands of years among people who were not discriminating even against gay people."

"Suddenly you want nine people outside the ballot box to require States that don't want to do it to change what you've heard is what marriage is to include gay people," Justice Breyer said to Bonauto.

"If you read about the Kalahari people or ancient peoples, they didn't have a government like this," Justice Anthony M. Kennedy said. "They made it themselves and it was man and a woman."

"This definition has been with us for millennia," Justice Kennedy continued. "And it's very difficult for the Court to say, 'Oh, well, we know better.'"

If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Photo courtesy of Pete Jordan/Flickr/CC

*Would changing the definition of marriage lead to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being legally validated in the future, for example, polygamy?*

Another concern was whether changing such a long-standing definition would present the possibility of suddenly opening it up to other types of relationships, such as polygamy. Justice Alito posed that "a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is not something that we have had before," and "recognizing that is a substantial break."

Hence, if same-sex marriage were to be accepted nationally, "Why [would accepting polygamy] be a greater break?" he asked.

*Would accepting same-sex marriages as valid lead to restrictions on religious practice?*

Religious freedom was another issue that was brought up in the case that same-sex marriage is accepted as a constitutional right.

Justice Scalia was the strongest proponent of this concern. He said that when the definition of marriage is a matter of the States, exceptions could be made as "to what is required for same-sex marriage, who has to honor it, and so forth."

"But once it's made a matter of constitutional law ... Is it conceivable that a minister who is authorized by the State to conduct marriage can decline to marry two men if indeed this Court holds that the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marry? Is it conceivable that that would be allowed?"

Other religious issues were brought up. What about a religious school that has married housing? Would it "be required to afford such housing to same-sex couples?"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asked. Justice Alito asked whether the tax-exempt status of a college or university that opposed same-sex marriage would be in jeopardy of being taken away.

*Does the State have a good reason to exclude a group of people from the institution of marriage?*

The biggest issue that the Justices had with the position that the states should decide the definition of marriage for themselves, is whether the states have a good enough reason to exclude a specific group of people from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 think before something as fundamental to a society and to individuals as marriage, before an exclusion of this kind can be made in that institution, the State needs some reason for that exclusion," said Justice Elena Kagan.

"Is gay marriage fundamental? ... The issue was starting from the proposition of, is the right to marry fundamental?" Justice Sonia Sotomayor said. "And then is it compelling for a State to exclude a certain group of people?"

Attorney John Bursch, who took the position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same-sex couples the right to receive marriage licenses, asserted that the need for marriage licenses arose out of a state interest to encourage the bond of biological parents and their children to be stable and long-lasting.

"If we assume a basic purpose of marriage is to encourage an emotional and rearing bo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aid Justice Breyer, "how will allowing gay people to marry ... weaken it?"

*Should a voter's "feelings" come into play in decision-making?*

Justice Sotomayor also disagreed with one of Bursch's arguments that a reasonable voter at the ballot box could believe that two different types of marriages—one that is focused on the bond of parents and children, and one that is focused on emotion and commitment of the couple—would

bring about different results in the family, which could lead a voter to prefer one type of family over the other.

"Why would that feeling, which doesn't make any logical sense, control our decision-making?" Justice Sotomayor asked.

*Would a state be required to recognize atypical marriages including polygamous ones, or marriages between cousins, or marriages with minors, that were lawfully performed out-of-state?*

In regards to Question 2, the Justices asked Attorney Douglas Hallward-Driemeier questions regarding different types of atypical out-of-state marriages, and whether any given state should be required to recognize them.

When posed with the issue of polygamy, Hallward-Driemeier responded that a state wouldn't have to recognize that marriage because the State "doesn't have such an institution," and "the State's marriage laws don't address" issues related to polygamy.

Justice Scalia said the same line of reasoning could be used for same-sex marriages. "The state says we only have the institution of heterosexual marriage. We don't have the institution of same-sex marriage," he said.

"So we have to assume that we would hold that a State has a sufficient reason for limiting marriage to opposite-sex couples," added Justice Alito. "And Mr. Hallward-Driemeier acknowledged that a State could refuse to recognize an out-of-state marriage if it has a very strong public policy against that marriage, if it's a polygamous marriage, if it's a marriage of very young individuals. So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could be something in between. So there's a sufficient reason for the State to say, we're not going to grant these licenses ourselves, but not a strong enough reason for us not to recognize a marriage performed out of state."

## USCRC Pastoral Education (US 채플린 목회대학원)

USCRC Clinical Pastoral Education(CPE) programs provide an opportunity for ministers, seminarians and lay people to develop pastoral competency within a particular pastoral setting(usually a hospital, parish, hospice or retirement home). The CPE approach to training is based upon an "action-reflection" model of learning. Pastoral trainees function as ecumenical chaplains who provide pastoral care in assigned areas and use their experience in pastoral encounters as a basis for their learning.

**USCRC CP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pastoral identity and the growth of professional competence as a minister.**

### ◆ Specific objectives of CPE are :

- To become aware of one's self as a minister and of the ways one's ministry affects people.
- To become a competent pastor of people and groups in various life situations and crisis circumstances and to develop the maturity to provide intensive and extens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To utilize the support, confront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peer group for the integration of personal attributes and pastoral functioning.
- To become competent in self-evaluation and in utilizing supervision and consultation to evaluate one's pastoral practice. .
- To develop the capacity to utilize one's pastoral perspective and competence in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preaching, teaching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To become aware of how one's attitudes, values and assumptions affect one's ministry.

1. 미군군목(육군, 공군, 해군, 해병, 해안경비대) 예비역 및 현역 후보자 훈련프로그램
  2. 병원 원목 자격 취득과정(CPE)
  3. 양로병원 양로호텔경영학 과정
  4.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MAVNI) 지원자 시험준비반
- \*유학생이나 각종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한 분(남녀)들중에 2년이 넘은 분은 소정의 시험을 통해 미국에 입대하고 영주권취득후 미군회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타학교생도 환영)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전교생에 개인 랩탑 컴퓨터 수업(교과서 대체 및 방과 후 온라인 수업 보강)
- 토론 위주 수업으로 학생의 발표력, 창의성, 협동심 강화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문의: (213) 400-3588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킨더 학생모집

